

-(으)ㄹ 뿐이다

그것뿐이다, 단지 ~일 뿐이다

주장을 한 가지로 좁히고 그 이상의 가능성을 답습니다. 칭찬을 사양하거나 어떤 일을 대수롭지 않게 말할 때 자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뿐이다	하다 → 할 뿐이에요
받침으로 끝남	-을 뿐이다	좋다 → 좋을 뿐이에요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뿐이에요
과거	-았/었을 뿐이다	했을 뿐입니다
명사와 함께	명사 + 뿐이다	이것뿐이에요
격식 있는 형태	-(으)ㄹ 따름이다	할 따름입니다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 → 만들 뿐이다. 과거는 -았/었을 뿐이다이고, 명사에는 뿐이다를 바로 붙입니다: 이것뿐이에요.

이것 말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: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. 한국어에서 감사나 칭찬을 사양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.

부족함을 담담하게 말할 때도 씁니다: 남은 것은 이것뿐이에요.

관련 표현 -(으)ㄹ 따름이다는 같은 뜻의 더 격식 있는 말로, 연설이나 공식 성명에서 흔히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
- 2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.
- 3 남은 것은 이것뿐이에요.
- 4 저는 그냥 지켜볼 뿐이었어요.
- 5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요.
- 6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었어요.

■ 비교

만
만은 명사를 한정하고, -(으)ㄹ 뿐이다는 문장 전체를 한정하며 그 이상을 차단합니다. 뒤의 것이 더 무겁고 강조하는 느낌입니다.

저만 갔어요. (나 혼자 갔다) / 그냥 갔을 뿐이에요. (그저 갔을 뿐 다른 뜻은 없다)

-(으)ㄹ 뿐만 아니라
같은 뿐이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. 뿐이다는 한 가지에서 멈추고, 뿐만 아니라라는 한정을 부정해서 다른 것을 더합니다.

쌀 뿐이에요. (싸기만 하다) / 쌀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요. (싸고 맛도 좋다)

밖에
밖에는 부정 서술어가 필요하며 부족함에 대한 불만을 답습니다. 뿐이다는 긍정 서술어로 한계를 직접 말합니다.

이것밖에 없어요. / 이것뿐이에요.

■ 주의

- ✗ 저는 그냥 만들을 뿐이에요.
○ 저는 그냥 만들 뿐이에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더 붙이지 않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정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저는 제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.
○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
뿐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서는 띄어 씁니다. 명사 바로 뒤에서만 붙여 씁니다: 이것뿐이에요.
- ✗ 이것뿐이 없어요.
○ 이것뿐이에요. / 이것밖에 없어요.
뿐이다는 긍정 서술어와, 밖에는 부정 서술어와 씁니다. 둘을 섞으면 어느 쪽도 되지 않습니다.